

개요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① 2024년 8월에서 2025년 2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파급 영향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미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향후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커졌으며 여타 주요국은 보호무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의 추진 양상,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미 달러화 지수와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였다가 상당폭 되돌려졌다. 선진국 주가의 경우 미국은 큰 폭 상승하였다가 다소 조정되는 반면, 유럽은 금년 들어 상당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② 국내경제 성장세는 약화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하였다. 한편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등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부진한 경제심리,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금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1.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 및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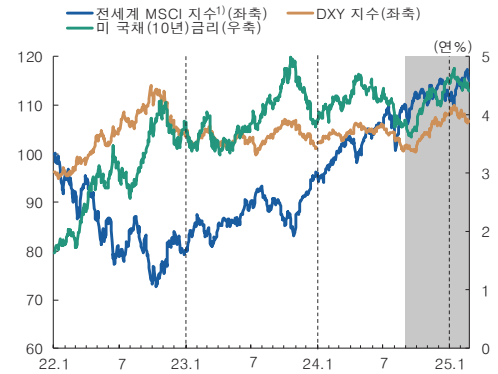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¹⁾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o			2026 ^o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	3.2	3.1 ^o	3.2 ^o	3.0	2.9	2.9	2.8
미국	3.0	2.6	2.8	2.4	1.8	2.1	2.1
유로지역	0.4	1.1	0.7	0.9	1.1	1.0	1.1
중국	5.0	5.0	5.0	4.3	4.2	4.2	4.0
일본	-0.8	0.9	0.1	1.5	0.8	1.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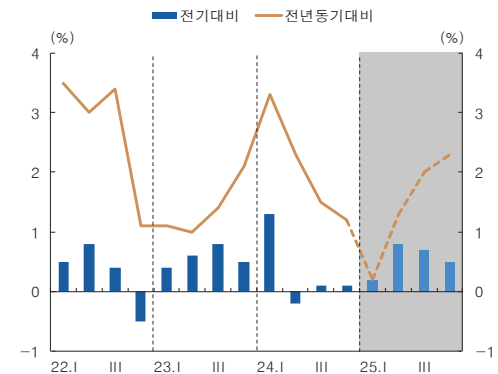
주: 1) 2025년 2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각국 통계청, Bloomberg

미국 국채금리, 글로벌 주가지수 및 미 달러화 지수



주: 1) 2022년 1월 1일 = 100 기준
자료: Bloomberg

실질GDP 성장률 전망¹⁾²⁾



주: 1) 음영은 2025년 2월 전망 기준
2) 2023~2024년은 잠정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③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지난해 10월 1.3%까지 하락한 이후 환율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물가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에서 등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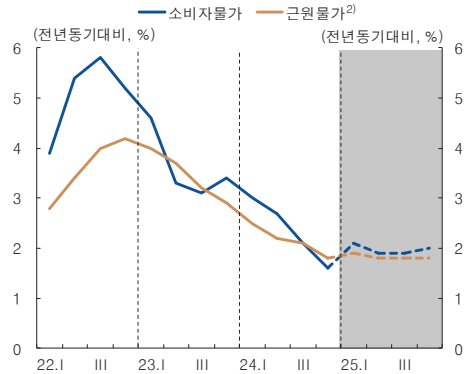
앞으로도 국내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근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1.9% 및 1.8%로 전망된다.

④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 정치 전개상황, 미 신정부 경제정책 등에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지연 및 관세정책 추진 영향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2월 들어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다소 낮아졌다. 주가도 큰 폭 하락하였다가 저평가 인식 등이 더해지면서 반등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지난해 9월 이후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환하였고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축소 흐름을 지속하였다. 다만 서울은 2월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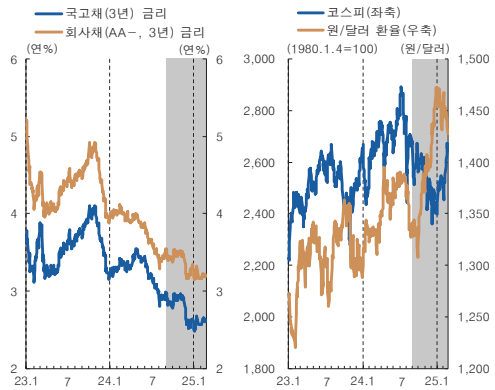
앞으로의 금융·외환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정치 상황 및 정책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성장세 회복 지연, 건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취약부문의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

물가상승률 전망¹⁾



주: 1) 음영은 2025년 2월 전망 기준
2)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내 금리·주가·환율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런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및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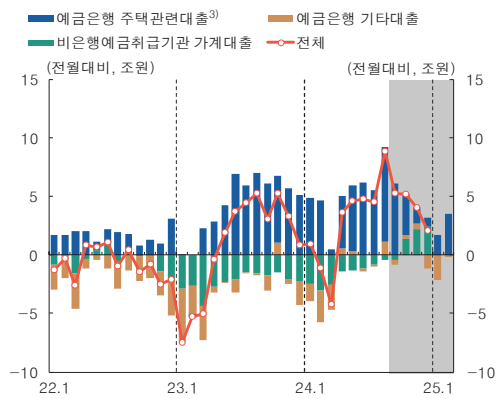
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기초를 전환하였다. 2024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50%에서 2.75%로 총 75bp 인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주요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 국내 정치 상황,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회의에서는 물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외환시장의 리스크도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였다. 11월 회의에서도 환율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추가 인하하였다.

올해 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유지하였는데,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된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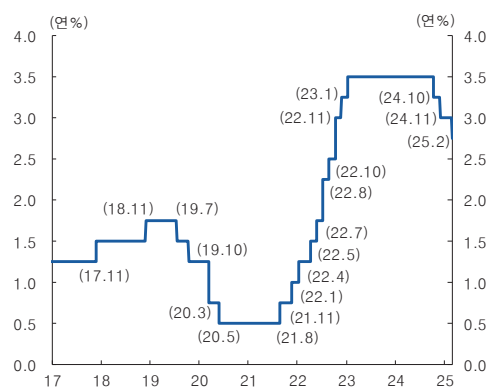
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한 차례 더 인하하였다. 외환시장에서의 경계감은 여전히 높지만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해 실물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심리가 실제 내수지표의 부진으로 이어진 데다 미 신정부 관세정책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감¹⁾²⁾



주: 1) 2025년 1~2월은 은행 가계대출(한국은행 속보치)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 앞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3) 전세자금, 이주비, 중도금 등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주: 1) () 내는 기준금리 조정 연월
 자료: 한국은행

들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⑥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응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12월 3일) 직후 금융시장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RP매입을 총 19.6조원 실시하였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거래한도도 650억달러로 증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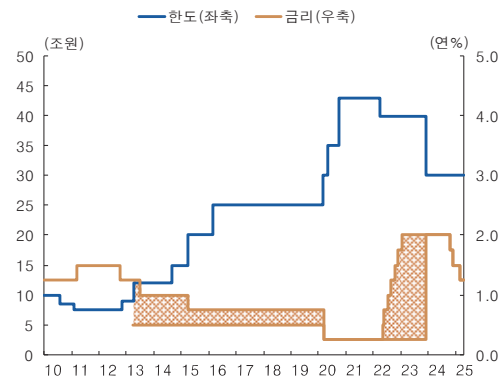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도 확대하였다. 기준금리 인하에 맞추어 대출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연 2.00%에서 1.25%로 인하하는 한편, 금년 1월에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9.0조원에서 14.0조원으로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⑦ 앞으로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정책 여건을 보면, 거시경제 면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금융완화 기초하에서 재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높은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성장과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¹⁾



주: 1) 음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였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